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2월 24일(월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정책과 정대진 과장(044-203-4210), 한용재 사무관(4214)
기획재정담당관 최남호 과장(044-203-5520), 이승헌 서기관(5521)

‘기업에 더 큰 시장을,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’

-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-

< 주요 내용 >

1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중소·중견기업 **무역금융** 확대 : (’13)73.8조원 → **(’14)77.4조원**

○ **환변동보험** 지원규모 확대 : (’13) 1.7조원 → **(’14) 2.5조원**

○ **’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확대**(’13년 8.7만개)하고 **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도 400개 양성**(’13년 240개)

○ **「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」, 「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」**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예정

2 주력산업을 선도자형(First Mover)으로 혁신

○ **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**으로 민간 R&D, 설비투자 유도

○ **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 및 100대 핵심장비 로드맵 수립, 국제공동연구** 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종합 지원 추진

○ 엔지니어링 등 **4개 분야 제조업 지원·융합 서비스 시장** 육성

3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·기능인력 양성

○ 산학융합지구, 업종별단체 중심의 **일-학습 병행** 시범사업 : (’14) 370명 → **(’17) 2,400명**

○ 해양플랜트 등 **고급인력수요 급증**분야 **’17년까지 2,000명 양성**

○ **국내진출 외국 이공계대학**(獨 FAU 등)과의 **과감한 산학협력 추진**

○ 기업연구소 근무 **여성연구원** 확대 : (’14) 4만명 → **(’17) 5만명**

4 에너지 신시장 창출 및 신재생 투자 확대

○ **도서지역을 대상으로 “에너지 자립 섬” 시범사업 추진**

○ ’15년까지 **태양광 발전시장 약 1GW 창출, 2조원 투자 기대**

○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 : (’14) 12% → **(’20) 30%**

5 FTA·WTO 협상 및 TPP 논의에 적극 대응, 국내대책도 차분히 준비

○ 아태 경제통합 핵심축 기능 확보로 **FTA 시장비중 55% → 71%** 확대

6 우리 청년들의 UAE 등 해외진출 활성화

○ UAE에 원전 운영·정비인력을 **’20년까지 1,500여명** 진출 → 원전서비스, 자원개발, 특허 등 **다양한 분야로 현지취업 확대**

○ 스위스 직업교육, 영국 해양플랜트 설계과정에 **’17년까지 100명 파견**

7 자원·에너지 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

○ **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확보** 추진 및 핀란드·베트남 원전 수주 노력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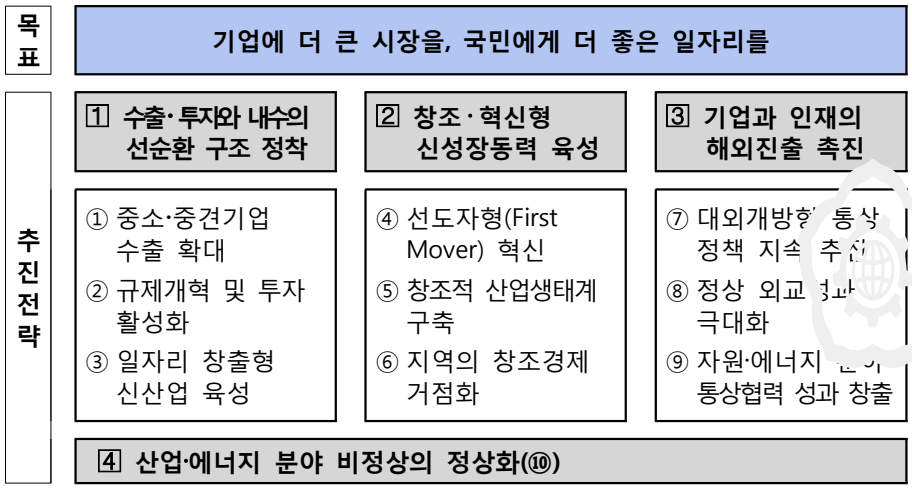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1.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개요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2014년 업무보고에서 **'기업에 더 큰 시장,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'를 목표**로 **4대 분야, 10대 전략**을 보고하였음

○ 동 계획은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**산업부 출범 2년차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액션플랜** 성격

< 산업부 업무계획(4대 분야 10대 전략) >



□ 업무보고에 이어 **'산업과 농촌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 발굴'**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, IT 등 산업과 농업의 융합으로 **새로운 경쟁력을 확보**하고 **시장을 확대**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

○ 동 토론회는 **기업·농민·전문가·정부관계자 등이 참석**하였으며, 산업과 농업간 **융합·협업 성공사례*** **발표** 및 융합기술 제품의 수출 등 **판로확보 지원정책 소개**가 이루어졌음

* (예) W社는 친환경 농식품 생산부터 유통 全단계의 신선도 실시간 점검 IT 기술을 활용하여 '12.6월 창업 이후 6개월 만에 매출 116억원 달성

2. 2014년 업무계획 주요내용

가.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

(필요성)

□ 美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**환율 변동이 증대**되고 **신흥국 위기**가 우려되는 등 **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리스크가 높아**지고 있으며,

○ 내수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**해외마케팅 전문인력**과 **해외시장 정보부족**, **수출운영자금 확보 곤란**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

(대응방향)

□ **중소·중견기업이 취약한 환리스크 대응력**을 높이기 위해 민간 신규 특별출연 등을 통해 **무역금융 지원을 확대**('14년 77.4조원)

○ 특히, **환변동보험 인수규모**를 **2.5조원으로 8천억원 확대**하고, 환수금 부담없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**새로운 보험상품**(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)을 **도입**(2월)

○ 또한, **중국**과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**북미·유럽 시장**을 중심으로 **전시회 개최와 무역사절단 파견** 지원을 확대*

* 전시회: ('13) 5,535개사 → ('14) 5,835개사, 무역사절단: ('13) 2,753개사 → ('14) 2,860개사

□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**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**하여 **온라인 One-click에 제공**할 예정(7월, Tradenavi.or.kr)

○ FTA 활용과 외국의 무역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**FTA 콜센터(1380)을 활성화**하고, **해외인증 지원 콜센터(1381)을 개통**(3월)하는 한편, 주요국에 **한국판 암참(Kocham)을 설립**

□ '17년까지 **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확대**('13년 8.7만개)하기 위해 수출 역량 정밀진단, 1:1 밀착상담, 판로개척·무역금융 지원 등 **맞춤형 종합 프로그램**을 **확대***하고, **전문무역상사를 본격 운영**(7월)

*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 지원 : ('13년) 3,579개사 → ('14년) 4,271개사

○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**후보기업도 '14년 200개로 확대**하여 전략·인력·금융·마케팅 등 **프리미엄 서비스 제공**

나. 주력산업을 선도자형(First Mover)으로 혁신

(필요성)

□ 셰일가스 붐을 활용한 미국 제조업 복원 가속화, 일본의 엔저를 활용한 공격적 시장 확대, 독일의 Industry 4.0 추진 등 주요국의 **'제조업 르네상스'** 추진으로 **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**되고 있음

○ 하지만 우리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지연되고,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**세계 1위 제품이 감소**하고 있는 상황

*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1위 제품수(개) : ('09) 73 → ('12) 64

(대응방향)

□ 금년에는 지난 해 12월 선정된 **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**하여 **새로운 성장동력 창출**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

<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>

시스템 산업		
·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· 자율주행 자동차	·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· 고속·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	· 국민 안전·건강 로봇 · 첨단소재 가공시스템
소재·부품 산업	**창의 산업**	**에너지 산업**
· 탄소소재 ·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	·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· 생체모사 디바이스 · 가상훈련 시스템	·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· 직류 송배전시스템

○ 금년 상반기에 **산·학·연이 공동 참여하는 TF를 구성***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, 상호협업을 통해 **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**을 유도

* 참여주체별 역할 : **(대기업)** 수요업체참여, 고위험 기술개발, **(중소·중견기업)** 장비·부품 기술개발 **(대학·연구소)** 원천기술 개발, 인력양성

○ 또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**사업화펀드 조성, 기술획득형 국제 공동연구, 100대 핵심 장비개발, R&D-표준 연계**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

○ 한편,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, 자율주행자동차 등 **미래부 미래성장동력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**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

<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기대효과 >

- **10년 이상 장기 추진**으로 민간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**민간 투자방향 제시**
- 융합(제조업+IT·신기술 등)을 통한 **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**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**新산업생태계 창출**
- **중소·중견기업 및 기반산업**(소재·부품, 뿌리산업, 임베디드 SW 등) **발전**

다.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

(필요성)

□ 작년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발표, 전기요금 체계개편 이후 **에너지 신시장 분야 투자수요는 존재**하나 높은 초기투자비용,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부재로 **시장창출이 부진**한 상황임

* 전기요금 체계개편 등 제도개선 이후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과 전력다소비기업 등에서 구체적인 ESS 투자 계획 수립

(대응방향)

□ 금년부터 **ICT 기반 수요관리시장을 본격 확대**해 내가기 위해 **전력수요관리시장 개설**, 신재생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(ESS) 연계시 **공급인증서**(REC) **가중치 우대** 등 시장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○ 이와 함께 민관 TF를 통해 **에너지 新산업**(ESS, EMS, DR, CCS 등)별 **대표 비즈니스 모델**을 발굴하고, 관련 규제개선 등 **맞춤형 지원 정책 패키지**를 마련하여 **시장성 확보**도 지원하기로 하였음

○ 또한 **도서지역**(예 : 울릉도)에 풍력, 태양광, 매립열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을 연결하여 디젤발전을 대체하는 **'에너지 자립 섬**(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)**'을 시범 구축**할 예정이며,

- 전력 공기업과 신재생 업계가 도서지역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조성사업에 공동참여토록 하여 **수출역량**도 확보

□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 확대가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**민간 투자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**

○ 이를 위해 **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**(RPS)를 개선*하는 한편, **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**을 **'14년 12%에서 '20년 30%까지 확대** 유도해 나갈 예정

*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재조정(6월),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 시장 참여 확대

○ 아울러,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**규제 완화를 추진**하고, **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**할 계획

*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R&D 과제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을 발전단가 저감형 R&D에 투자

라.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기술・기능인력 양성

(필요성)

□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는 마이스터고,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군복무 기간 동안 **경력이 단절**되어 **기업 재교육비용이 증가**

○ 여성의 경우에도 **출산・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**로 산업 현장에서 전문 R&D 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

○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는 선취업된 고교 졸업생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산업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

(대응방향)

□ 마이스터고, 특성화고 졸업생 등이 **일과 학습을 병행**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**산업단지 내 대학(산학융합지구)**에 진학하여 **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**를 **병행**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산 (고용・교육부 협업)

* 산단 내 기업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또는 계약학과 (주말・야간과정)에서 학업
* '14년 200명 → '17년 1,000명

○ 또한 금년부터 **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중심**으로 중견기업과 인근대학 계약학과간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,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는 **시범사업**도 착수하기로 하였음

* 금년 10개사 170명을 대상으로 성공모델 구축 → '17년 400개사, 1,400명으로 확대

□ 여성 **R&D 인력의 경력단절 예방・해소**를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**인건비 지원 허용**, **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** 신설, 가점 규정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,

○ **여성공학인 고용포럼** 운영,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여성 R&D 인력의 경력복귀에 대한 **사회적 분위기도 확산**해 나갈 계획

□ 엔지니어링, 해양플랜트, 산업융합, 디자인 등 일부산업의 경우 **현장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**하고 있으나, **이론・논문 중심의 대학교육 운영**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어려움

○ 이에 **특성화대학 역점지원**을 통해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하고,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(원)(예 : 獨 FAU, 벨기에 Ghent대 등)을 활용하여 **공동 R&D** 등 산학협력도 강화

마. FTA·WTO협상과 TPP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대책도 차분히 준비

(필요성)

□ 한·중 FTA 등의 추진에 따라 농수산식품 등 민감분야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, 아태 지역에서 TPP, RCEP 등 지역통합형 FTA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

(대응방향)

□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, 작년 6월 마련한 신통상로드맵의 **핵심축(linchpin) 전략**에 따라 **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FTA**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○ **중국, 영연방 3개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**과의 FTA를 추진하는 한편, **TPP는**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(3월), 추가공청회 등을 토대로 **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**해 나갈 계획

○ WTO 무역원활화 발효준비와 ITA등 복수국간 협상, DDA 작업계획 마련논의에도 적극 대응

□ 또한 업종별 통상산업포럼·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**각계각층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**을 통해 **통상현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응**해 나가는 한편,

○ 최근 심화되는 **보호무역조치에도 업계와 공동으로 현명히 대처**

□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**보완대책을 내실화**하는 한편, 협상과 연계한 **취약산업 지원대책 발굴**(6월), **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** 등 선제적인 국내대책도 추진할 계획임

바. UAE 등 해외에 우리 청년들의 진출을 활성화

□ **UAE**는 **중동·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**로 **우리 전문인력**에게 **높은 관심**을 갖고 있는 **청년 진출 유망지역임**

○ **원전 수출을 계기로 형성된 신뢰관계**로 한국과의 인력 교류와 협력 확대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는 만큼,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○ 이에 **'20년까지 원전 운영·정비 분야**에 **우리 청년 1,500여명**을 진출시키고, **금년 상반기 중**으로 양국 간 **MOU 체결, 현지 교육거점** 등을 포함한 **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마련**할 계획

○ 아울러, **UAE 최대 관심사**인 **양국 청년들간의 공동 교육훈련**을 거쳐, UAE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중동·아프리카·유럽 등 **제3국 진출 추진**가능성도 타진

□ **스위스·영국은 대통령 국빈방문**시 체결한 **MOU**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의 **기술획득형 해외진출**을 지원할 계획임

○ **'17년까지** 스위스 전자·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, 영국 해양플랜트 설계대학원으로 **청년인재 100여명을 파견**할 계획이며, **금년 말 '15년 중에 현지로 진출**할 **청년 40명을 우선 모집**할 예정

사. 자원·에너지 분야 통상협력 성과창출

(필요성)

□ 글로벌 경기침체 등 **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원개발·대형플랜트 수주**에 착실한 성과*를 거두었으나,

* **이라크 하울러 광구**(5.5억 배럴), **모잠비크 가스전**(19Tcf) 탐사 성공 및 암바토비 니켈광 상업생산 등

○ **양적성장만으로는 한계**에 도달하여, 핵심사업 중심으로 **자원개발의 질적역량을 강화하고, 비전통에너지원 자원개발**도 준비할 필요

○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약한 **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**을 위해 기술·금융 등 역량 강화 필요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(대응방향)

□ 해외자원개발 **패러다임을 "양적확대"에서 "질적 성장"으로** 전환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

○ 정상급 외교기회를 활용하여 **UAE 10억 배럴 생산유전을 확보**토록 노력하고, 세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

* **(탐사)** UAE 3개 광구, **(셰일가스)** 美이글포드 생산·매장량 확대

○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·전문성·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 심의과정에 **민간전문가 참여**와 **투자실명제를 도입**

□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원전 발주가 가시화된 **핀란드, 베트남*** **등에 적극적 수주활동을 지속**하며, 사우디, 이집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여 수주환경을 조성하겠음

* 핀란드는 발주사와 입찰협상, 베트남은 양국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

□ 또한, 자원개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**금융·인력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**를 지원할 예정

○ 특히, **무보·수은의 대출·보험으로 61조원을 지원**하고 **자원개발 펀드 보증(2.5조원) 및 자원개발융자(0.2조원)도 확보**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

※ 참고 : ①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요약
②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(별첨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한용재 사무관(☎ 044-203-4214),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승헌 서기관(☎ 044-203-55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요약**

1. 수출·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

가. 중소·중견기업 수출 확대 : '14년 수출 6,000억불 달성

1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**환변동보험** 등 **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** 지원을 대폭 확대*하고, **새로운 환변동보험 상품**** 도입(2월)

* 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: ('13년) 73.8조원 → **('14년) 77.4조원 (3.6조원↑)**
환변동보험 인수규모 : ('13년) 1.7조원 → **('14년) 2.5조원 (8천억원↑)**

** 환수금 부담없이 환율하락시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

○ 中·美·EU 중심 전시회·무역사절단 등 **해외마케팅 지원 대폭 확대**

* 해외 전시회 지원 : ('13년) 5,535개사 → **('14년) 5,835개사**
* 무역사절단 지원 : ('13년) 2,753개사 → **('14년) 2,860개사**

○ **해외시장·FTA 활용·비관세장벽 정보 수요자 맞춤형** 실시간 제공

* 34개 수출지원기관 해외시장 정보통합 → 실시간 온라인 제공(7월, Tradenavi)
* FTA 콜센터 1380 이용 활성화, 해외인증 획득 지원 콜센터 1381 개통(3월) 등
* 주요국에 해외진출 기업 협의체인 '한국판 암참(Kocham)'을 설립('14년 10개국)

2 내수기업 → 수출기업 →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

○ **전문무역상사 본격운영**(7월)하여 유망 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

○ **기업 수출역량 정밀진단·1:1 맞춤형 수출상담*·패키지 지원**** **확대**를 통해 **'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** 육성('13년 8.7만개)

* 기업현장 방문 '이동 코트라' : '13년 2,048개사 → '14년 2,200개사
** '판로개척+해외마케팅+무역금융' 패키지 : '13년 1,531개사 → '14년 2,071개사

○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을 확대(現 46개사 → '14년 200개사)하고 **전략·인력·금융·마케팅 4대 지원센터**를 통해 기업별 전담지원

3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

○ 중계·가공, 전자상거래, 정부간무역(G2G), 절충교역 집중 육성

중계·가공무역	▪ 재고금융 신설 :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지원 ▪ 단기수출보험 지원확대 : 국내법인 → 국내법인 + 현지법인
전자상거래 수출	▪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축 → '14년 100개사 지원 ▪ 해외소비자 구매 촉진 위해 통관·결제·물류시스템 개선
G2G 및 절충교역	▪ G2G 계약범위 확대(방산→非방산물자) : '14년 5억 달러 계약 달성 ▪ 절충교역 대상 확대 : 군수품 → 군수품 外 물자 포함

* 「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」 마련(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상정 예정)

나.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: '14년 외국인투자 유치 170억불 달성

1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

* 기존의 등록규제(약 1,200개) 중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선별(~3월) 후 재검토 대상 규제의 정비계획 마련(~6월)

2 지역 중소·중견기업 투자애로 및 무역·인증 관련규제 해소

* 대형·덩어리규제는 무역투자진흥회의·규제개혁장관회의 통해 해소 → 석유공사(울산 부지를 S-Oil 공장증설 부지로 제공(2.21 매매계약 체결), 1단계 5조원 규모 투자 본격 추진

○ 대한상의·산단공을 통해 **지자체·지방행정기관 관련 풀뿌리형 투자애로***를 발굴 후 해결 추진

* ① 지자체의 소극적 관행, ②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·규정, ③ 중앙정부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적 관행, ④공공기관(지사, 지점 등)의 행정편의적 규정 등

○ **국내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된 상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**(6월) 등

○ **부처간 중복인증 해소,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** 등 기술분야 규제 개혁

* 각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결과 상호인정(국표법 개정)
* 전기용품(세탁기 등) 및 공산품(압력솥 등) 안전기준 837종과 해당 KS 일치화(6월)

2 외국인투자 활성화

○ **한·중 FTA, 동북아 오일허브** 등 우리만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여 **글로벌기업 헤드쿼터***, **R&D센터****, **복합리조트***** 등 중점 유치

* 헤드쿼터 인정기준 마련,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특례제도(17%) 지속 적용 등
** 외국기술자 소득세 감면(2년간 50%, ~'18년), 입지지원대상에 공장부지 외 건물임대 포함 등
***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, 복합리조트 공모제 도입 등

○ **일본 및 중국기업 대상**으로 **민관합동 투자유치활동** 집중 전개

* (일본) 외촉법 개정(1월) 관련 합작투자 프로젝트(2.3조원 규모) 본격화
* (중국) 제주도·새만금 등에 중국의 리조트, 식품기업 투자 유치

○ **고용창출효과**에 따라 **외투기업 조세감면·임대료 차등지원**

* 인력당 세제 감면한도 확대(1천만원→2천만원), 고용창출에 따라 임대료 차등감면

○ **유턴기업 추가유치**(현재 56개) 및 고부가가치화 등 맞춤형 지원

* 분양가·임대료 30% 감면, 설비투자 10% 보조, 법인세·소득세 감면(50~100%) 등
* (익산 주얼리) 공동 R&D센터 준공(6월), (부산 신발) 신발집적화단지 조성(10월)

다.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

1 제조업 지원 및 융합 서비스 시장 육성

① 엔지니어링·디자인 ▪ 두뇌 전문기업 발굴·육성(20개사)	**② 시험인증** ▪ 컨소시엄 구축('14) 및 통합브랜드 도입('17)
③ 고급설비 거래·유지보수 ▪ 고급설비 토탈 서비스 Complex 조성('15)	**④ 자동차 튜닝** ▪ (산업화) 튜닝 클러스터 조성(영암·대구)

2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

○ **전력수요관리시장 개설, 신재생과 ESS 연계시 REC 가중치 우대** 등을 통해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지속 창출

- **민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** 발굴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방안을 마련(3월)하는 한편, **도서지역에 '에너지 자립 섬*'** 시범 구축

* 독립된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하여 수출 테스트베드로 활용

○ **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, 공공기관 설치 확대** 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활성화 및 **발전단가 저감 R&D** 확대(신규 R&D의 20%)

* (RPS)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, 소규모 사업자 참여기회 확대, REC 가중치 재조정
* (공공기관)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: ('14) 12% → ('20) 30%

○ **울산 북·남항 저장시설 구축** 본격화,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(3월) 등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**석유 중계무역시장 창출**

2. 창조 · 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

가. 주력산업을 선도자형(First Mover)로 혁신

□ **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**('13.12월, 국과위 확정) **체계적 본격 추진**

<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>

시스템 산업		
·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· 자율주행 자동차	·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· 고속·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	· 국민 안전·건강 로봇 · 첨단소재 가공시스템
소재·부품 산업	**창의 산업**	**에너지 산업**
· 탄소소재 ·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	·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· 생체모사 디바이스 · 가상훈련 시스템	·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· 직류 송배전시스템

< 기대효과 >

- **10년 이상 장기 추진**으로 민간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**민간 투자방향 제시**
- 융합(제조업+IT · 신기술 등)을 통한 **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**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**新산업생태계 창출**
- **연관 중소 · 중견기업 및 기반산업**(소재 · 부품, 뿌리산업, 임베디드 SW 등) **발전**

○ **산 · 학 · 연 공동참여 사업단** 등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(상반기 TF 구성)하고 **산 · 학 · 연 · 관 밀착 협업** 추진

① 중소 · 중견기업	② 대학 · 연구소
▪ 부품 · 장비 개발	▪ 원천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
③ 대기업	**④ 정부**
▪ 수요업체 참여 및 고위험 기술개발	▪ 국제 공동연구, 사업화, 합작투자 유치

○ 정부의 **선제적 R&D 투자**(예타 준비중)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, **사업화, 글로벌 공동연구, 인프라**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

- **(사업화) 산업기술금융 펀드** 로드맵 수립(4월)
- **(국제 공동연구)** 英 · 佛과 기술획득형 R&D 과제기획 착수 및 공동 R&D 매칭펀드 조성 추진
- **(인프라)**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필요한 **'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'** ('14~'17) 수립(10월) 및 **R&D-표준 연계**로 신속한 사업화 뒷받침

나.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

1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 · 기능인력 양성

○ **산학융합지구** 내 **맞춤형 프로그램*** 확산, **계약학과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**** 등 마이스터고 · 특성화고 졸업생 **일 · 학습 병행**환경 조성 (고용 · 교육부 협업)

* ('14년) 200명 → ('17년) 1,000명
** ('14년) 50개 기업, 170명 → ('17년) 400개 기업, 1,400명

⇨ **성공모델을 구축**하고, 지속적으로 **업종 · 지역별로 확대**

○ 엔지니어링, 해양플랜트, 산업융합, 디자인 등 **인력수요 급증분야 특성화대학(원) 역점 지원**을 통해 고급기술인력 지속 양성*

* ('14) 1,250명 → ('17) 2,000명 목표

-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(원)을 활용하여 **산업석박사센터 설치, 공동 R&D** 등 산학협력 지원

○ 경력단절 예방 · 해소를 통한 **여성 R&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**

* 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인건비 지원 허용,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 신설, 가점 규정 강화,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운영, 홍보대사 위촉 등 사회적 분위기 확산

2 협력적 기업생태계 구축

○ 산업혁신 3.0을 **'공정혁신형'에서 '공정+기술혁신형'**으로 심화하고, 성과공유제를 1차 · 제조업 위주에서 **2 · 3차 협력사 및 서비스업**으로 확산

* 산업혁신운동 3.0 참여기업수 : ('13년) 2,000개 → ('14년) 4,000개 → ('17년) 10,000개
* 성과공유제 추진과제수 : ('13년) 3,041개 → ('14년) 4,500개 → ('17년) 12,000개

○ **대 · 중소기업 동반성장**을 '부당 납품단가 관행 개선'에서 **'생산물량 협력'**으로 심화 · 확산하고, **대 · 중소기업간 기술 · 구매 협력** 강화

* 기술나눔확산협약(3월), 기술이전박람회(4회) 등을 통해 대기업 휴면 특허 · 기술 공개 · 이전
* 신기술공모제, 구매상담회 등 대기업의 중소 · 중견기업 신제품 · 신기술 구매 촉진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<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협력사례(GE 협력) >

◇ **GE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역량강화 추진**

* 해양플랜트, 헬스케어, 항공산업, 기술·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

GE 보유특허 공개(약 1,000건)	▪ 사업화지원·新비즈니스 모델 창출
GE 브랜드·글로벌 유통망 활용	▪ 마케팅 역량 강화·수출확대
투자유치	▪ 유방암 촬영기기 투자유치('13.12월 MOU)

◇ **「산업부-GE간 MOU」** 및 **「GE 특허·브랜드 활용 설명회」**를 통해 Kick-off

다.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

1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(7월 지역위, 부처합동)

○ '중앙주도 → **지역자율**', '광역경제권 → **지역생활권**', '**컨설팅·행정·재정 패키지 지원**' 등으로 **지역정책 실행계획 마련**

* 국가균형발전법 개정('13.12월)으로 시·도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등의 수립근거 마련

2 창의·혁신적 지역산업 육성

○ **선택과 집중**에 의한 **시·도 별 주력산업 선정·지원**(3월)

* 시도별로는 타 시·도와의 협력산업, 시·도 단위 지원산업 등 총 8개 이내 산업 선정

○ **공예품** 등 **지역전통산업의 글로벌 명품화** 및 **신시장 창출**

* (例) 대구 섬유와 부산 신발업계 협업 → 방탄복 소재 활용 초경량 등산화 개발
* 지역연고(전통)산업육성사업('14년 110억원), 생활산업 30대 선도기업 육성(9월)

○ **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**하여 **신산업 육성**

* '14년 3~5개 대상지역 선정·지원(60억원)

3 노후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조('14년 7개)

○ **혁신역량 강화 및 근로·정주환경 개선**을 위해 **정부사업* 집중 지원**

* 산학융합지구·종합비즈니스센터(산업부), 근로자복지관(고용부), 문화재생사업(문체부) 등

○ **'복합용도구역'*** 등 관련 **법·제도 정비**를 통해 산업단지 혁신 촉진

* 산업·공공·지원시설의 복합·집적이 가능토록 용도구역 개선(산집법 개정, 6월)

3.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

가.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

1 아·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(linchpin) **기능 확보**를 통해 향후 **FTA 시장비중 55% → 71%, FTA 교역액 비중 36% → 61% 확대**

양자 FTA	▪ 중국, 영연방 3개국, 인니, 베트남 등 중점 추진
광역 FTA	▪ 예비 양자협의, 심층영향분석(3월), 공청회를 통해 TPP 참여여부 결정
WTO	▪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준비, ITA 등 협상 대응, DDA 작업계획 마련

2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성과를 공유

○ 해외 무역장벽 사례 발굴을 통해 **각국의 보호무역조치**에 대응

* 수입규제 국내대응반(수시), 비관세장벽 협의회(3월, 9월),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(12월) 등

○ **업종별 통상산업포럼·지역 설명회** 등 업계 소통·의견수렴 활성화

* 통상산업포럼 22개 업종별 분과회의(1~3월)·전체 회의(3월) 등

○ **보완대책 내실화***와 함께, 협상과 연계한 **취약산업 지원대책 발굴**(6월), **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** 등 선제적 국내대책 추진

* 한·중 FTA 2단계 협상 단계부터 부처합동 「한·중 FTA 준비과제」를 마련, 새로운 지원대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시장개방에 대비

나.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

1 정상외교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기업활용 촉진

○ **권역별 여건에 특화**된 **유망 산업협력 프로젝트** 중점 발굴·추진

중국	▪ **고급소비재 및 내수시장** 분야 진출 역점	**동남아**	▪ **경제발전**을 위한 기반산업 분야 중점
중동	▪ **에너지·플랜트 및 신성장 산업** 육성 협력 중점	**중앙아**	▪ **산업·에너지 인프라** 분야 중점
구주	▪ **기술협력 및 첨단분야** 투자유치 중심	**미주**	▪ **미래에너지,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협력**

○ 정상외교 순방성과 활용을 위한 **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** 및 **지속적인 후속관리**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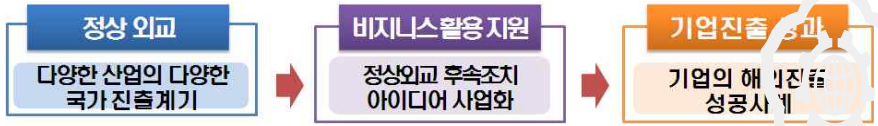
-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**정상외교*** **및 비지니스 활용정보, 지원사업**을 포함한 **「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**」 **가동**(1월)

* 정상공동성명(9건), 기업활동 관련 MOU(72건), 경제행사 등 포함
** http://president.globalwindow.org

- 부처별 **담당관 지정**하여 **후속조치 이행, 경제성과 등 평가**(반기별)

- 기업의 정상외교 성과 활용에 각 부처·기관 **해외진출지원사업,** 정책 금융, 기술협력, 인력양성, 정책자문 등 **맞춤형 지원 실시**

*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아이디어를 기업의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



2 청년 전문인력들의 해외진출 활성화

○ **(UAE) 연내에** UAE와 **원전 운영·정비지원계약**을 **체결**하고, **'20년까지 1,500여명** 파견

☆ UAE는 중동·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로, 원전 수출을 계기로 형성된 신뢰관계, 교류·협력 의사 등 우리 청년인력에 관심이 많은 유망지역

- **원전서비스, 자원개발***, 특허 등으로 **진출분야를 다변화하고, UAE 최대 관심사**인 양국 청년 **공동훈련, 인턴쉽** 등 교류 확대

* '20년까지 원전서비스·자원개발 분야에 450여명 진출 목표

- 상반기 중 **MOU 체결, 현지 교육거점** 등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

* 에너지협력 MOU 및 원전 인력교류·서비스산업 육성 MOU 체결, 한국석유공사 - UAE 석유공사·대학 공동 교육거점 마련 등

○ **(스위스·영국) 스위스 전자·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**과 **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대학원**에 **100명** 파견 및 **취업 연계**('15~'17년)

* 협력사업 본 계약 체결(9월) → '15년 진출청년 40명 모집(12월)

☆ 스위스·영국은 대통령 국빈방문시 체결한 청년 해외진출 관련 MOU를 통해 진출여건이 조성된 지역

○ **(신흥국) '14년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** 개설(중기청 협업)을 통해 **100명**을 양성하고, **K-Move 사업**으로 일자리 발굴(200개) 등 지원

* K-Move 센터를 '13년 3개 → '14년 7개로 확대

다. 자원·에너지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

1 '양적확대'에서 '질적성장'으로 자원개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○ **UAE 10억 배럴 생산유전**을 차질없이 확보하고, **셰일가스·가스하이드레이트**(국내 대륙붕) 등 미래 에너지·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

< 최근 주요 성과 >	< '14년 핵심 사업 >
▪ (탐사) 이라크 하울러 탐사성공, 모잠비크 추가 탐사 성공 ▪ (개발·생산) 암바토비 니켈광 생산개시	➡ ▪ (오일) UAE 3개 광구 탐사사업 ▪ (셰일가스) 美 이글포드 생산·매장량 확대 ▪ (대륙붕) 동해 가스전 탐사·개발, 하이드레이트 생산시험('15년)

○ 투자심의 과정에 **민간전문가 참여, 투자실명제 도입**으로 에너지 공기업 투자 프로세스의 책임성·전문성·투명성 강화

2 원전·플랜트 수주 기반 확충

○ **핀란드·베트남 대상 수주활동**을 지속하는 한편, 사우디 등에 수주환경 조성을 위한 **협력 확대**(기술·인력)

* (핀란드) 입찰협상 진행중, (베트남) 공동 예비타당성조사 완료('14)

○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**금융·인력 등 지원 인프라** 확충

* (금융) 수은·무보 대출-보험(보증) 61조원 공급, 자원개발펀드(2.5조원)·융자(2천억원) (인력)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 추진(4월),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('14년 3,250명)

4. 산업 · 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

1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수급 관리

○ **「원전사업자 관리 · 감독법 제정」** 추진('14년 상반기) 등 비리근절 이행감독체계를 확립하고, **안전 최우선 원전운영체계*** 구축

* 예방정비 강화, 선제적 설비교체('17년까지 1.1조원), 안전설비 투자 확대('12~'15, 1.1조원 등)

- 투명한 원가검증체계 도입 등 **강도 높은 제도개선** 지속 이행 · 추진

○ 발전소 적기준공, 고장 최소화를 통해 **동 · 하계 적정예비력을 확보**하고 '29년까지 **중장기 수급전망**과 **발전설비 확충계획** 확정('14.하)

2 소통과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

○ **체계적인 갈등예방 관리시스템**을 운영하고, 소통 · 공감대 형성과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해 **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관련 갈등** 최소화

* (사용후핵연료) 충실한 공론화(~'14년말)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('15년~),
(송 · 변전설비) 주민 참여 '입지선정위원회' 구성 · 운영

3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지속 추진

○ **11개 에너지 공기업 총 부채비율을** '14년 대비 **'17년 19.5%p** 축소하고,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**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 대비 38.6% 감축**

* 11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비율 : ('14년) 174.8% → ('17년)155.3%
** 16개 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: ('13년)485만원 → ('14년)298만원 (38.6% 감축)

○ 산업부 R&D 모든과제에 대한 「실시간 감시 · 관리시스템(RCMS)」 적용, **제재부가금 전면시행** 등 **산업부 R&D 자금 원천적 유용방지**

4 국민이 행복한 공공서비스 제공

○ 에너지 공급시설* · 도시가스 · LPG** 등 **주요시설의** 안전관리 강화

* 보안 · 테러예방 등을 위해 군에서 퇴직한 경계 · 작전분야 전문인력으로 방호자문단 운영
** 20년 이상 도시가스 배관 정밀진단(3월), 소규모 LPG 시설 법정검사 확대(7월)

○ 주택용 누진제 개선 및 **취약계층 요금할인** 확대(12월)와 **에너지 바우처** 법적근거 마련(12월) 등 따뜻한 에너지복지 제공 · 확대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